

광주시내버스 파업 위기 넘겼다

노조 76% “지노위 임금 조정안 수용”... 오늘 최종 결정

광주시내버스노동조합이 진통 끝에 도출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안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하면서 임금협상 관련 노사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파업 찬반 투표 가결을 통해 파업 동력을 확보한 노조 측이 주말 사이 투표를 통해 지노위 측 조정안 수락을 결정할 상황에서 광주시로부터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받는 사측이 지노위 조정안을 뿌리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은 3일 임금협상 관련 조합원 투표 결과 조합원 76% 찬성(1043명 투표 793명 찬성)으로 지난 30일 야간 도출된 전남지방노동위 조정안(3.65% 인상)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앞서 3차례에 걸친 지노위 조정에도 사측과 임금 협상에 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30일 오후 6시부로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 들어갔다. 이틀에 걸친 투표 결과 조합원 1388명 가운데 1055명이 투표, 찬성 908명(86% 찬성률)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그러나 노조 측이 파업 찬반 투표 돌입한 직후 지노위가 임금인상 조정안을 내고 노사 양측이 오는 4

일까지 조정기간을 받아들여기로 하면서 임금협상이 곧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노사가 요구한 임금인상안이 각각 3.9%, 3.2%로 지노위 측 조정안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노위 조정안이 나오기 직전까지 노조 측은 6.9% 임금 인상, 사측은 2.6% 인상을 고집하는 등 양측 입장이 커 파업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노조 측은 지노위 조정안 수락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4일 오전 10개 시내버스 운송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광주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6차례 임금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노조 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상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광주시내 98개 노선 버스 998대를 운행하는 운전원은 총 2300여명으로, 이 중 780여명은 비정규직 중형버스 운전원이다.

애초 노조 측은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들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핵심 요구 사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연장 된 대인예술아시장 2일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아시장에서 별장소를 언플러그드 소규모 음악회에서 가수들이 재즈공연을 펼치고 있다. 대인예술아시장은 주말마다 인파들로 넘쳐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서진여고 특성화 전환 추진 난항

교육부, 흥복학원 법인 정관·학과 변경 질의에 ‘불가’ 통보

교육부가 설립자의 비리로 임의사항이 파견된 광주 흥복학원의 법인 정관 변경과 학교 체제 개편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 등이 추진중인 흥복학원 산하 ‘서진여고의 특성화’ 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임

시사 체제에서 학교법인 정관 변경 및 학교체제 개편 관련 질의’에 대해 어렵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임의사항 체제에서 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임의사항 체제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또 법인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학교를 신설하거나 변경, 폐지가 가능한 지 여부도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종합고등학교 체제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도 임의사항의 역할과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서진여고의 특성화고 전환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학교 측은 흥복학원 설립자인 이흥하(78)씨에 학교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거부당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주택가 출몰 100kg 멧돼지 사살

동천동·치평동 일대 5일간 9차례 주민 신고

광주 도심에 최근 잇따라 출몰했던 대형 멧돼지가 지난 1일 운전저수지 주변에서 사살됐다.

멧돼지 포획에 나선 경찰과 서구청 측은 “사살된 멧돼지는 광산구 혹은 북구에 살다 먹이활동을 위해 광주전을 타고 이동하던 중 무리에서 이탈한 개체로 보이며, 최근 신고가 빚발쳤던 것도 이 한 마리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일 광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15분께 무게 100kg을 웃도는 수컷 멧돼지 한 마리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염사에 의해 사살됐다.

이날 오후 7시42분께 “광주 서구 상무힐스테이트 옆 테니스장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서구청, 경찰, 광주전남야생동물물 유해구제협회 등 관계당국이 추적에 나선지 30여분 만이었다.

앞서 광주 도심지역인 서구 동천동, 치평동, 쌍촌동 일원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멧돼지 출몰을 알리고 포획을 요구하는 주민 신고가 빚발쳤다. 지난달 27일 새벽 3시5분께 첫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다섯동안 무려 9차례나 접수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먹이 활동 중 뜻하지 않게 무리와 이탈한 뒤 도심에 흘러들었다가 낮에는 호대 주변 숲에 몸을 숨기고 밤이면 제자리로 가기 위해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큰 피해 없이 포획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광주 멧돼지 출몰지점



1	6월 27일 03시05분	동천동 빗고들대로
2	04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3	05시	“
4	6월 28일 02시	무각사
5	23시 49분	호남대 앞 상가
6	7월 1일 17시 12분	쌍촌동 신천맨션
7	19시 42분	상무 힐스테이트
8	20시 08분	운천 백서스 건너편
9	20시 15분	운천저수지 사살

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일당 400만원 ‘귀족 노역’ 논란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

됐다. 전씨는 2일 현재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일(약 2년8개월), 857일(약 2년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전씨 등이 여전히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연남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해질 19:51 달출 05:06 달몰 19:27

해안지역 강풍주의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소강 상태에 들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 비	22/27	보성	비온뒤 맑	22/25
목포	비온뒤 맑	21/24	순천	흐리고 비	23/26
여수	비온뒤 맑	22/24	영광	흐리고 비	22/26
나주	흐리고 비	22/27	진도	비온뒤 맑	22/25
완도	비온뒤 맑	22/26	진주	흐리고 비	21/25
구례	흐리고 비	23/27	군산	흐리고 비	22/25
강진	비온뒤 맑	22/26	남원	흐리고 비	20/25
해남	비온뒤 맑	22/26	홍산도	비온뒤 맑	20/21
장성	흐리고 비	21/26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면바다	남~남서	1.5~2.5	남~남서	1.5~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면바다(동)	남~남서	1.5~2.5	남~남서	1.0~2.0
	면바다(서)	남~남서	1.5~2.5	남~남서	1.0~2.0

◇ 물때

목표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1:55	07:13	13:56	19:17
	08:49	02:44	21:26	14:50

◇ 생활지수

- 식중독: 경고
- 자외선: 보통
- 피부질환: 보통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5(화)	흐리고 비	23/27
6(수)	흐리고 비	22/28
7(목)	흐리고 비	22/28
8(금)	흐리고 비	22/29
9(토)	흐리고 비	23/28
10(일)	흐리고 비	23/29
11(월)	흐리고 비	22/30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배경조각이 직통되는 정미소 옆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배경조각기 위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생필품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던 집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의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별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여덟 가족은 살기 위해, 외딴섬에 집 마련에 임시 판별로 5명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별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쪽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나 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시신 후원금으로 사랑이네 주거신속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에 입주시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